상시 생태관광 프로그램_겨울(12월~3월)

유형 | 오전형

☐ 프로그램명: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실내프로그램(반달가슴곰)	국립공원 깃대종 비누 만들기

☐ 프로그램 내용

○ 활동장소: 지리산생태탐방원

○ 운영기간: 겨울(12월~3월)

○ 소요시간: 2시간

○ 참가대상: 제한 없음

○ 참가인원: 제한 없음

☐ 프로그램 소개

지리산의 겨울에 반달가슴곰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체험을 통해 반달가슴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운영일정

오리엔테이션(지리산생태탐방원) → 국립공원 깃대종 반달가슴곰 비누만들기 → 반달가슴곰 알아보기(영상,물품) → 해산

☐ 세부일정표

	시 간	대 상	주요일정	대체프로그램
오전 프로그램	10:00~10:10	공통	○ 오리엔테이션	해당 없음
	10:10~11:00	공통	○ 국립공원 깃대종 반달가슴곰 비누 만들기	
	11:00~12:00	공통	○ 겨울에 반달가슴곰은 무엇을 할까?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는 지리산 역사여행

활동장소	지리산탐방원
운영기간	12월 ~ 3월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제한 없음
참가인원	제한 없음

활동목표	• 자연을 살리는 착한 여행 '생태관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생태관광의 실천 계기를 마련한다. • 반달가슴곰 생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음
준비물	• 영상자료, 해설자료, 체험재료 등
유의사항	• 장비체험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할 것 • 체험시 돌아다니지 않도록 통제 할 것

단계	내용	시간
도입 (마음 열기)	• 오리엔테이션 – 국립공원 및 지리산생태탐방원 소개, 운영진 소개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탐방 및 힐링)	• 국립공원 깃대종 반달가슴곰 비누만들기 – 반달가슴곰 모양의 천연비누 만들기	50분
	• 야생 반달가슴곰 겨울나기 – 반달가슴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 – 겨울잠은 어디에서 잘까? – 야생 반달가슴곰은 어떻게 관리할까? – 반달가슴곰 영상 보기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참가자간 소감 나누기 • 해설사 결론 정리	1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생태탐방원의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우리나라 제 1호 국립공원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리산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중략) 저희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를 탐방객들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머무르면서 보고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어진 체류형 생태관광 시설입니다. 저희 지리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탐방원 중에서 제 1호 북한산생태탐방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탐방원으로써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탐방원 이외에도 소백산, 설악산, 가야샨, 한려해상 등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 총 8개의 생태탐방원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탐방원의 전경사진입니다. 혹시 우리 탐방원 건물 형태를 보고 떠오르는 한자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탐방원은 한자중에 '메 산'자의 형태를 본떠서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탐방원이 생태관광 시설의 메카로써 건전한 탐방문화와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정착을 선도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탐방원에 머무르시는 동안 쾌적하고 편안한 이용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수칙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탐방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탐방원 내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시거나 뛰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탐방원은 환경보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의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관에 들어가면 사진과 같은 비상시 대피 안내도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탐방원 이용중 불편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국립공원 깃대종 반달가슴곰 비누만들기

지금부터 지리산탐방원 생태관광 첫시간으로 환경사랑 비누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탐방원에서 환경사랑 비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탐방원은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머무르시는 동안 샴푸나 일반 비누보다는 비교적 분해가 잘 되는 천연 비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 재료로 인해 피부에도 좋고 더불어 환경오염까지 예방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환경사랑 비누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환경사랑 비누 만들기 체험에 사용할 재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는 크게 비트, 황토, 숯, 쑥, 현미, 청대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비트는 건성피부와 알레르기 진정에 좋고, 황토는 노폐물을 분해하고 해독력이 뛰어나며 숯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쑥은 피부 미백효과가 있고 현미는 건성피부의 보습효과가 있으며 청대는 지성피부와 항아토피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누 베이스를 끓일 때 핫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핫플레이트가 매우 뜨거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분말가루와 비누베이스를 섞을 때 눈에 튀지 않게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칼로 비누베이스를 자를 때 손이 베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 께서는 더욱 더 안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 앞에 비누 모양을 만드는 틀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틀은 각각의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동물, 그러니까 일종의 마스코트 같은 동물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깃대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깃대종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깃대종 모양으로 비누를 만드는 이유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들기 순서

1. 비누베이스를 잘 녹을 수 있도록 잘게 썰어준다.
2. 비누베이스를 비커에 담아 저울에 올린 다음 90g을 맞춰준다.
3. 비누베이스가 담긴 비커를 핫플레이트에 올리고 끓인다.
4. 컵에 비누재료 분말가루를 작은 스푼으로 3스푼 가량 넣는다.
5. 그 컵에 식물성 에탄올을 크게 3방울 넣어준 다음 다시 에센스 오일을 10방울 넣고 잘 섞어준다.

6. 비누베이스가 잘 녹았는지 확인하고 다 녹았으면 비누베이스에 글리세린 5방울을 넣은 다음 온도를 75도에서 85도로 식혀준다.
7. 녹아서 액체상태인 비누베이스를 분말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컵에 2/3 정도 담아준다.
8. 잘 섞어서 비누 베이스를 몰드에 부은 다음 에탄올을 뿌려서 마무리한다.
9. 1~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누가 굳으면 몰드에서 빼낸다.




반달가슴곰 비누 만들기

야생 반달가슴곰 겨울나기

여러분 밖에 날씨가 무척 춥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반달가슴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야기 해보세요.
네 맞아요? 그럼 조금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께요, 선생님이 말한 겨울잠을 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까요(침대에 누워서, 온돌방에서.....)
먼저 반달가슴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반달가슴곰

식육목 곰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다. 보통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 털이 나 있으나 갈색 또는 적갈색인 것도 있다.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흰색 무늬가 있다. 이 무늬의 크기는 변이가 심하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얼굴은 길고 이마는 넓고 귓바퀴는 둥글게 튀어나와 있어 눈에 잘 띈다. 주둥이는 짧으며, 목과 어깨에는 긴 갈기가 있는 것이 많다. 발톱이 날카로워 나무껍질을 벗겨 액즙을 핥은 데에도 이용되고 나무에 오를 때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갈고리 구실을 한다. 높은 지대의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림이나 숲 속에 살며 후각과 청각이 매우 발달하였으나 시각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하여 나무에 잘 오르며 바위 절벽도 잘 기어오른다. 산에 오를 때는 평지보다 빠르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단단한 과일이나 과실 특히 도토리를 좋아하나 신선한 어린 싹과 잎, 나무뿌리를 먹고, 풍뎅이, 개미 등의 곤충과 유충도 먹으며, 소형 포유류도 먹는다. 산 속 개울가에서는 가재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새들의 어린 새끼나 알도 찾아 먹는다. 꿀을 특히 좋아하며 꿀벌의 벌집을 발견하면 벌에 쏘이면서도 꿀벌과 꿀을 통째로 먹는다. 가을에 먹이를 많이 먹어 지방이

축적되면 겨울에 굴속 또는 나무 구멍을 찾아 동면에 들어간다. 먹을 것이 적어 지방 축적이 충분치 못하면 동면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지리산, 강원도 북부 산악 지대, 비무장 지대에 아주 적은 수가 서식하고 세계적으로는 동부 시베리아, 중국, 캄보디아, 타일랜드, 히말라야, 아프가니스탄, 타이완, 일본에 분포한다.

형태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138~192cm, 꼬리의 길이는 4~8cm, 귀의 길이는 9~15.5cm, 뒷발의 길이는 21~24cm, 체중은 80~200kg 정도이다. 대형 포유동물로 불곰에 비해서 몸이 작다. 앞가슴의 V자형 반달무늬의 크기는 변이가 심하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얼굴은 길고 이마는 넓으며 귓바퀴는 둥글고 주둥이는 짧다. 목과 어깨 부위에 긴 갈기가 있는 것이 많다. 보통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 털이 나 있으며, 갈색 또는 적갈색인 개체도 있다.

생태

높은 지대의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림이나 숲속, 먹이 자원이 풍부한 혼효림에서 생활한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단단한 과일이나 과실, 특히 도토리를 좋아한다. 후각과 청각은 매우 발달하였으나 시각은 발달되지 않았다. 발톱이 날카로워 나무나 바위 절벽을 오를 때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갈고리 구실을 한다. 산에 오를 때는 평지보다 빠르다. 겨울에는 동면을 하며, 임신 기간은 200~240일 정도이고 새끼는 1~3월에 1~4마리 정도 낳는다.

한국, 중국의 북동부,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백두산 일대와 설악산, 지리산 등지에서 채집한 기록이 있으나 1983년
설악산에서 포획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일제 때 시행한 해수구제사업과 웅담 선호에 따른 남획으로 절멸의 위기에 처하자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하였고, 2004년부터 종 복원사업을 전개하여 지리산에 방사하고 있다.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2019년 5월,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무인생태조사 장비에 어린 반달가슴곰이 포착되었다.

해외에는 동부 시베리아의 우수리 지방에 동일 아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군내에서는 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지리산 높은 지대의 험하고 바위가 많은 숲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식지 훼손과 밀렵으로 인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나 현재 복원사업으로 많은 계체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마무리(참가자 간 소감 나누기)

아쉽게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즐겁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참 흐뭇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탐방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짧게 한마디씩 이야기해볼까요?
네~여러분들 모두 오늘의 소감을 잘 표현하신 거 같은데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맞아요, 최대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있기로는 파리와 모기는 해충이죠? 그럼 파리나 모기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맞는걸까요?
아닙니다. 파리와 모기가 사람에게는 해충일지라도 자연 생태계나 먹이사슬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이 있답니다. 여러분, 도미노 놀이 아시죠? 가장 앞에 있는 한 개의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있던 도미노들이 줄줄이 무너지죠? 자연도 마찬가지에요. 자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거미줄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훼손되어도 자연 전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인간도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자연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연 보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에 자리 잡는다면 언젠가는 그 효과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